

3 월의 안테나

노 영 한
(본지 편집국장)

더욱 적극적인 소비홍보 필요

개학이 되었어도 계란 값은 오를줄을 모르고 있다. 구정이 지나고 부터 소비가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너무 불황의 기간이 길었고, 이제는 양계업자들도 체념 상태에 까지 와있다.

부채의 누적은 이제 어차피 빚에서 헤어나기가 힘들게 되어 반짝 경기로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중에서도 한국계우회(회장 고태영)를 비롯한 몇몇 양계인들이 계란값을 유지해보려고 자금을 거출해서 비축을 하는등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하고 있다.

사료협회도 회원사들로 부터 특별회비를 모아 계란을 수출하는데 따른 결손액을 보상

하여 업계에 활력을 주려고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이미 2월 25일 27만개를 수출하였고 3월초부터 가격이 회복 되도록 수출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란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을 국내소비를 늘이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물론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공급량을 조절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해외수출 외에도 국내 소비 증가를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반성할 필요가 있다.

축협중앙회에서 T.V를 통해 닭고기와 돼지고기 선전을 현재 하고 있으나 계란은 거의 전무 상태라고 할만큼 미약하다.

참고로 우리의 이웃인 일본의 예를 들면 생산자들이 기금을 모아(기금 또는 현품도 가능하다) 작년 10월 29일 20만개의 계란을 일본 후지T.V에 기증하였고, 후지 T.V에서는 생산자들이 요청한 조건에 따라 기증받은 20만개의 계란을, 일본 동경에서도 가장 번화한 신주쿠(新宿)역 광장에 쌓아놓고 시청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방



◁ 동경에서 가장 변화한 신주구역 동쪽 광장의 특설 무대에 계란 10만개를 쌓아 놓고 배부하는 광경을 후지 TV가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있다.

영하였다. 계란은 10개 단위로 포장되었으며 변화한 시내중심가에 산더미 같이 쌓인 계란은 많은 왕래시민이나 전국의 시청자에게 큰 흥미꺼리가 아닐수 없어 계란이 한동안 온 국민의 화제가 되고 계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광장의 특설 무대에는 희고 깨끗한 계란이 산적해 있고 그위에 오색 기구를 띄워 호기심을 돋우고, 계란에 관한 선전문과 요리 팸플릿을 행인에게 나누어 주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1시에 생방송이 시작되어 30분간 방영 하였는데 T.V를 보고 구름같이 몰려와 12시 15분에는 20만개의 계란이 모두 팔렸다. 물론 계란은 실비로 판매되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사회복지 시설에 쓰여졌는데 우리의 경우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양계인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 결과적으로 자신도 유익해지는 1석3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선전은 사전에 여성단체나 계란 소비 회사 또는 자선단체등과 협력하는 방법등으로 더욱 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체화되는 계란 때문에 상인

과 씨름하다보면 자연 언짢은 언짢도 하게되고 이렇게 되면 얼굴에 주름이 하나더 늘게 되고 신경성 소화불량등 각종 신경계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시야를 넓혀 남도 도와주고 나도 잘되는 길을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10만개의 계란이면 개당 40원씩, 4백만원인데 시청앞 광장이나 서울역 광장에서 양계인 주최 불우이웃돕기 계란소비촉진 선전 대회 같은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을까?





옥수수 안정기준가격 150 \$로 하향 조정

농수산부는 배합사료용 옥수수 안정기준 가격을 현행 t당 160 \$에서 150 \$로 3월 3일부터 10 \$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난 12월 17일 195 \$에서 180 \$로, 1월 18일 180 \$에서 160 \$로 조정한지 15일만에 또 10 \$이 내렸다.

이번 조치로, 각 배합사료공장들은 인하 발표가 있는 3월 3일 당일로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 하였다.

지난 1월에 모든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해서 이번에는 인하폭을 산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그 어느때 보다도 보안이 철저한 가운데 전격으로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의 인하발표 수시간 후에 사료공장은 배합사료가격을 인하해서 출고할 수 있었다.

기자가 3월 3일 몇몇 사료공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산란초기 사료의 경우에 1kg 당 3~4원씩 인하해서 4일부터 출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1월에는 톤당 20 \$까지 인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옥수수 사용에 따른 가격차와 관세 강피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하폭이 극히 미약 하였었다(2월호 24p 참조).

이번 10 \$인하가 양계산물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1% 정도에 그칠 것이지만 그간 너무 오랜기간 적자에 시달린 양계업자에게 정

신적으로 생기를 주는 역할은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월 18일 20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산옥수수 때문에 실제 배합사료 가격이 양축가들의 예상보다 크게 빛나가자 크게 실망을 하였는데 국산옥수수의 사용에 대해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잠시 설명 코저한다.

우리는 연간 2백만톤이 넘는 옥수수를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2%도 안되는 4만여톤의 국산옥수수를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품질이나 물량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가격에서 너무 큰 차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국산옥수수 사용에 있어서는 한국 사료협회가 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에 의뢰한 연구결과에서도 그 공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의 옥수수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80년에는 154천M/T에 달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수매정책과 품종개량 및 기술혁신의 강화에 따른 단보당 수확의 획기적 증가의 결과이다.
- 옥수수는 대부분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의 비율은 총소비량의 85%를 넘고 있으며 식용은 4.4%에 불과하다(1980년).
- 국산 옥수수의 사료원료 이용은 가격면에서는 도입옥수수에 비해 매우 불리한데 1980년産 옥수수의 이용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요인은 1.1%로 그 금액은 50.2億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축산물 생산에 반영되었거나 양축농가가 부담하였다.
- 옥수수의 생산농가는 옥수수의 수매로 94億원의 소득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양축농가의 부담액보다 큰 액수이므로 수매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평의 원칙에 의해 양축농가의 부담액을 경감시킬수 있는 수매제도가 필요하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산 옥수수의 사용은 양축농가가 약50억원의 부담이 있는 반면에 옥수수 재배 농가는 94억원의 소득증대로 국가적으로 유익하나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연구 되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매년 국산옥수수의 생산량은 조금씩이나마 증가될 것이고 이의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사용될 때의 가격차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방안이 모색 되어져야 하겠다.

작년처럼 기금에서 보전 하는 것과 금년같이 사료공장에서 생산비로 흡수하는 방법이나 일반 미곡과 같이 양특기금 등에서 보상 받는 방법등도 연구되어 지기를 바란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마음

계란수급이 2년간이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공급량 보다 적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간 생산자들이 광화문 네거리까지 계란을 들고 진출도 했었고, 적자를 보아가며 외국에 수출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짧은기간 동안 효과는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시행할수도 없고 하여 근



본적으로 경기회복을 이루는데는 실패 하였다.

채란양계산업은 다른 어느분야 보다도 축산업중 가장 빨리 기업화가 되었으며 채란양계산업의 발달이 부화 배합사료공업이나 동물약품, 단미사료, 양계기계기구등 관련산업발전을 주도 해왔기 때문에 채란업계의 장기간 불황이 채란업계 자체에 국한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들 모든 관련 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채란업의 위치 때문에 채란업을 위주로한 양계산업의 안정화 방안이 학계, 업계는 물론 관계 전문가등이 외국의 예와 국내의 여건을 참조로 성안된바 있으나 웬일인지 시행에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 부터인지 우리사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극적이고 순간적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점차 많아지는것을 볼 수 있다. 신문에 보면 해결사라는 범죄조직 까지 생겨나고 있는 모양으로 돈을 받고 해결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 된다고 한다.

얼마전 한일은행 본점 행정실에도 젊은청

년이 3번의 대학낙방과 취직도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청년은 자기의 앞길을 한일은행본점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말았다.

평소에 가정교육도 잘받았고 품행도 올바른 청년이 문제해결 방안을 잘못선택 함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이르켰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 크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흔히 보게 된다.

양계업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불황을 한번에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만을 택하여 오지는 않았는지?

모든 단기대책들이 단기보다는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았는지?

비록 시간이 걸리고 더디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양계산업 안정화방안”(본지 80년 1월 호 참조)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이며 가장 빠른 길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 추 판 매”

품 종

하이섹스 70 일령 600 수
세 이 버 70 일령 600 수
와 렌 70 일령 1,000 수

사업안내

축산사업부 : 산란계, 중·대추, 노계, 종계
멧돼지, 사슴, 자돈, 포유우
부동산사업부 : 제사, 돈사, 우사, 농장부지 임대 및 매매

국제농업개발

☎ (272) 1943 · 1950 · 4089